

서울시, 스타트업 생태계 키운다 AI기업 ‘아우토크립트’ 상장 성공

〈모빌리티 보안 전문기업〉

펀드 받은 기업 중 첫 상장
1차로 300억 펀드 출자 진행
총 4850억 목표 운용사 공모

서울시의 창업 지원과 펀드 투자를 받은 모빌리티 보안 전문기업 ‘아우토크립트(AUTOCRYPT)’가 최근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는 등 가시적인 투자 성과가 나타나면서, 서울시가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펀드 투자를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7~8월 중 총 485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300억원을 출자 약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 중 절반 이상을 AI 산업에 집중적으로 출자해 AI 중심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시 투자로 경쟁력을 키워 최근 코스닥에 상장한 아우토크립트는 2019년 8월 창업한 세계 유일의 폴스택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다. 자동차 내외부 통신 보안부터 유럽 수출용 평가인증기관(Technical Service, TS)까지 제공 가능하다. 2023년 9월 서울시 출자 펀드 운용사의 추천으로 서울창업허브 공덕에 입주했으며, 서울시 출자 펀드 5개로부터 총 141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이와 같은 우수 창업기업이 ‘데스밸리’를 넘어 시장에 안착하고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올해도 ‘서울 Vision 2030 펀드’를 통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미래 유망산업 발굴과 창업생태계 촉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2026년 4년간 서울시 출자액과 정부 모



서울시청 전경.

태펀드, 민간 투자금을 연계해 총 5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시는 지난 2년간 총 1510억원을 출자 약정해 2조 6646억원을 조성했다.

앞서 지난 2월 시는 ‘AI SEOUL 2025’에서 AI산업 육성 7대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서울 Vision 2030 펀드 내 AI 특화펀드를 신설해 2년간 총 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성 3년차인 올해 첫 출자사업은 ▲미래 혁신의 핵심인 AI분야 투자 강화를 위해 신설한 ‘인공지능대전환’ ▲시장 침체로 신속한 투자지원이 필요한 ‘바이오’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첫걸음동행(엔젤)’ 분야 등에 총 300억원을 우선 출자한다.

특히, 인공지능대전환분야는 융복합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AI인프라 및 핵심모델, 데이터분석·컴퓨팅, AI융합 서비스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민간과 함께 조성한 ‘서울 미래혁신성장 펀드(2019~2022)’를 통

해 AI 기업 262개사에 6115억원, 서울 Vision 2030 펀드(2023~2024)를 통해 AI 기업 51개사에 728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고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도유망한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사 제안서 접수는 14일 정오부터 28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제안서는 ‘종이 없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서울시 웹하드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서울 Vision 2030 펀드 출자사업’ 공고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과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www.sba.seoul.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올해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미래 혁신의 동력이 될 AI 분야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라며 “AI를 기반으로 다양한 융복합 산업이 출현하고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유망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Vision 2030 펀드’가 지속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청렴 제도 추진

오늘 ‘청렴 선포식’ 개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선수의 공정한 성장과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5일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유관 순기념관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교운동부 청렴 선포식’을 개최하고, 청렴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청렴 선포식은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관행을 차단하고, 학생선수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는 자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기반 강화를 병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운동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문단인 ‘청

대문(청렴의 대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자문단의 제언을 토대로 ▲학생선수 성장통지표 시범 운영 ▲운동부 정보공개 강화 ▲불법 찬조금 방지를 위한 암행 점검단 운영 ▲지도자의 청렴교육 의무화 등 후속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2026학년도부터 관련 정책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선수 성장통지표는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제도로, 훈련참여도, 대회출전 기록, 성장가능성 등을 담아 매 학기 1회 가정에 통지된다. 또한 서울학교체육포털을 통해 각 학교운동부의 운영 현황과 지도자 정보, 진로진학 결과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청렴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제도와 실천이 결합된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의 시작”이라며 “학생선수의 성장과 학부모의 신뢰, 지도자의 전문성을 모두 아우르는 투명한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교통혁신·미래산업으로 도약

테크노밸리·K-컬처 등 유치 박차

민선8기 고양시는 미래산업 추진에 고삐를 죄고 자족도시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지난 3년간 산업, 교통, 도시 정비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으며 발로 뛰는 행정으로 문화, 복지 등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 교통 혁신과 스마트 도시화

GTX-A 킨텍스역 개통으로 서울역까지 16분, 서해선과 교외선 재개로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다. 대곡역은 5개 노선이 모이는 ‘헨타역세권’으로 부상했으며, 버스 준공영제와 환승시설 확충도 진행 중이다. 동시에 원도심 정비와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도 본격화됐다.

◆ 복지와 소통 중심 행정

출산지원금, 주거비 지원 등 가족친화 정책이 호평받고 있으며, 교육특구

지정과 청년 창업공간 개소 등으로 미래 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했다. 노인 일자리 9,000여 개를 제공하고 시민소통을 위한 간담회, 민원 TF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 미래 산업 육성과 경제 기반 강화

고양시는 글로벌 공연도시로 부상 중이며, 벤처기업육성지구 지정 후 40여 개 기업이 입주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추진 중으로, 바이오, 모빌리티, K-컬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드론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그동안 경제, 산업, 일자리가 도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시간을 쏟아왔다”며 “꿈꾸는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도시 전환과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국민검증단 “이진숙, 자진 사퇴하라” 압박

논문 21편 중 18편서 표절 정황
IRB 미기재·중복게재 드러나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다수 논문에서 표절 의혹을 받으며 연구윤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4일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21편을 전수 조사한 결과, 18편의 표절률이 20%를 넘어 학계 기준상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라며 “표절률이 50%를 넘은 논문도 있으며, 학위논문을 표절한 논문에서 제자를 저자가

아닌 실험대상처럼 취급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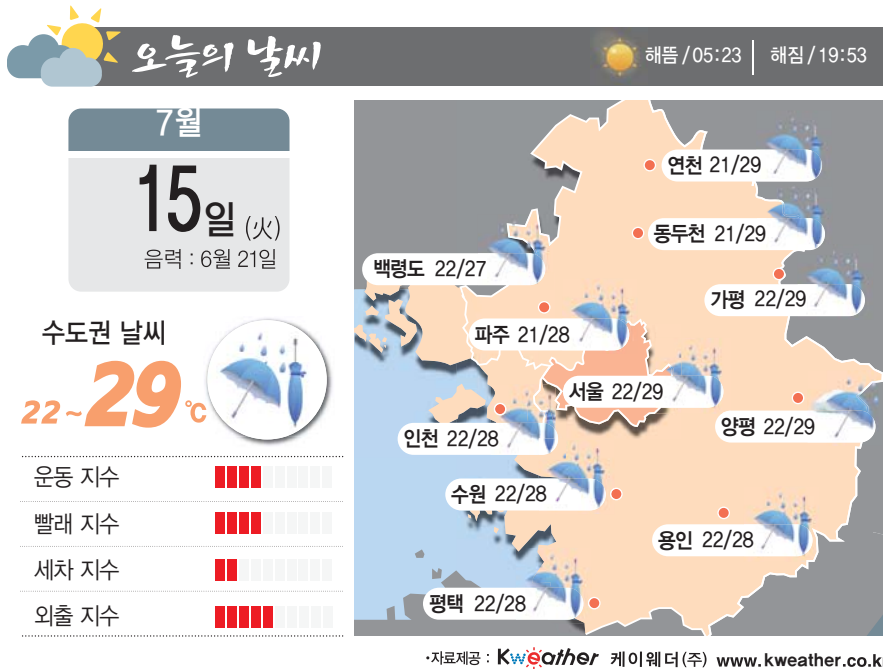
검증단이 대표적 사례로 든 논문은 2009년 학술지에 발표된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를 통한조명디자인 감성평가’다. 이 논문은 실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했지만, 제자 이름은 빠지고 이 후보자만이 제1저자로 등재됐다. 표절률은 52%에 달했다. 이 밖에도 제자 논문을 활용하고도 교신저자로만 기재하거나, 심지어 본인 논문 게재 시점이 제자의 학위논문보다 앞선 경우도 4건에 달했다고 검증단은 설명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참여하고, 서로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2건의 논문도 분석했다. ‘피로감 평가 연구’와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라는 제목으로 실린 두 논문은 실험 환경, 피험자 구성, 분석 방식, 결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유사했으며, 표절률은 최대 40%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윤리 위반도 문제로 지적됐다. 검증단은 “교수와 학생이라는 위계관계 안에서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도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논문이 5건에 이른다”라며 “이런 경우 자율적 동의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젠슨 황 “중국군, 엔비디아 시칩 활용 가능성 낮아”
▲트럼프 “푸틴에 실망…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지원” 첫 무기 승인

/사진 뉴시스

▲日오염수, 13차 해양 방류 시작… 삼중수소 농도 상향 방침
▲가자지구에 끊이지 않는 절규… 21개월 간 이어진 전쟁에 5만8000명 사망

▲비트코인 사상 첫 12만달러 돌파… 신고가 경신
▲6월 중국 수출액 5.8% 증가… “예상 넘게 증가율 가속”